

어린이 책꽂이



▲작곡가 윤이상 이야기 나비의 꿈=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작곡가 윤이상의 이야기다. 윤이상은 마흔이라는 늦은 나이에 유학을 떠나 세계적인 작곡가가 되었다. 한국인에겐 오랫동안 잊혀 있던 윤이상의 슬프고도 감동적인 꿈 이야기를 그렸다. (웅진주니어·9천500원)



▲환경 용사, 지구를 살려라= '똥다! 지식 탐험대' 시리즈의 첫 번째 권. 지구온난화로 인한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 아토피나 새집증후군 같은 환경 질환, 정체를 알 수 없는 전염병 등 재미있는 동화를 읽으며 다양한 환경 정보를 가르쳐 주는 책이다. (시공주니어·9천500원)



▲필리핀에서 온 조개 개구리=엄마가 필리핀 사람인 순호와 엄마가 돌아가셔서 할머니와 살게 된 경태의 이야기를 통해 결혼가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동화책이다. 다문화·한부모 가정 아이들에게는 그들이 성장하면서 맞닥뜨리게 될 문제를 씩씩하게 해결해나갈 수도 힘을 실어주고 있다. (주니어랜덤·8천500원)



▲동화로 읽는 세계의 문화 1 아시아편=인도, 이란, 베트남, 터키, 인도네시아, 중국, 일본, 몽골 등 총 16개 나라의 가장 재미있고 대표적인 이야기. 그곳에 사는 아이들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자신만의 독특한 문화와 지혜를 어떻게 배우는지 그 나라의 문화와 독특한 생활 방식이 녹아 있는 이야기를 담았다. (가교출판·9천800원)



▲염소 똥은 똥그랴다=마흔에 늦깎이로 등단해 미당문학상을 수상한 문인수(65) 시인이 처음 펴낸 동시집이다. 발랄한 '말맛'이 살아있는 표제작 '염소 똥은 똥그랴다' 비롯해 시인이 "두려움 반, 설렘 반으로" 썼다는 60여 편의 동시가 수록돼 있다. (문학동네·8천500원)



▲노빈슨 조선 최고의 무역왕이 되다=노빈슨 한국사 시리즈의 다섯 번째 권. 노빈슨이 떨어진 곳은 상업이 부흥하고 경제가 눈부시게 성장하기 시작한 조선후기 1800년대다. 의주상단에 입적해 무역왕으로 성장하는 노빈슨의 이야기를 통해 조선 후기 상인들의 활동 모습과 상품경제의 발달 과정을 그렸다. (뜨인돌·9천500원)



▲신나는 글쓰기 초등학교·행복한 글쓰기 초등학교=어린이들을 위한 '글쓰기 갑잡이' 책이다. 자기 생활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을 솔직하고 자세하고 쓸 수 있도록 구성 되어 있다. '겪은 일을 잘 떠올려', '되풀이 되는 작은 일도' 어린이의 눈높이에서 함께 세상을 보고 느끼는, 쉽고도 바른 책이다. (바보새·각권 1만3천800원)

▲작은 요새의 아이들=영국의 유명 청소년 소설가 로버트 웨스틀(1929~1993)의 소설. 제2차 세계대전이 한창이던 시기, 독일 군인과 영국 아이들이 우정을 쌓는 모습을 통해 전쟁의 참상과 척박한 환경에서도 피어나는 우정을 그렸다. (살림프렌즈·1만원)

짧은 시 한편에 담긴 철학적 고뇌와 사유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

강신주 지음



시나 철학을 접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너무 어렵다는 반응을 보인다. 온갖 낯선 이미지와 추상적인 개념이 혼란을 부추긴다. 하지만, 철학으로 시를 읽고, 시로 철학을 읽는다면 '인문학의 가장 높은 봉우리'인 두 영역이 조금씩 눈여겨볼 만한 것들을 만날 수 있다. 개념으로 이미지를 설명하고, 이미지로 개념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전작 '상처받지 않을 권리를' 통해 소설과 철학을 연결했던 동서 비교철학자 강신주씨가 새 책 '철학적 시 읽기의 즐거움'에서 시인 21명의 시와 철학적 21명의 사상을 연결하는 새로운 시도를 했다. "관료에게는 주인이 따로 없다! / 봉급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 개에게 개밥을 주는 사람이 그 주인이다 // 일제 말기에 그는 면서기로 채용되었다/ 남달리 매사에 근면했기 때문이다 (중략) 아프리카가 어딘가에서 식인종이 쳐들어와서 / 우리나라를 지배한다 하더라도 / 한결같이 그는 관리생활을 계속할 것이다 <김남주 '어떤 관료' 중>

매사에 근면, 성실, 정직해서 일제 말기에 면서기로 채용됐다 미군정 시기에 군 주사, 자유당 시절에 도청 과장을 거쳐 공화당 시절에 서기관으로 승진하고 민정당 시절에는 청백리상을 받은 한 관리를 풍자한 김남주 시인의 '어떤 관료'를 저자는 철학자 하나 아렌트의 '예루살렘의 아이히만'을 통해 읽는다.

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에 핵심적으로 관여한 아돌프 아이히만이 '인간의 발을 쓴 악마'가 아니라 평범하기 이를 데 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밝혀낸 아렌트는, 아이히만이 학살을 저지러 수 있었던 것은 사유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규명했다. "민주주의의 적은 우리 안에 있다"고 노래한 김수영의 '하..... 그림자가 없다'는 정의롭지 못한 최고 권력자를 몰아내는 것만으로 민주주의가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수동성과 '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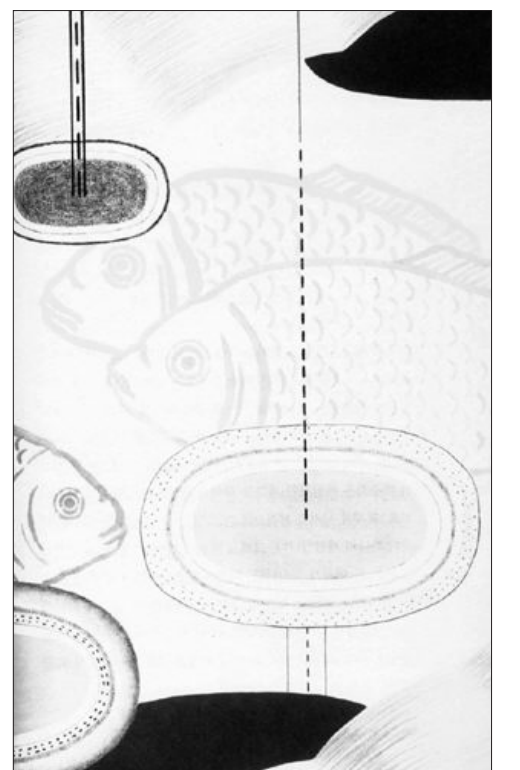
발적 복종'이 사라져야 한다고 노래한다면서 감독의 재소자들을 연구해 '자발적 복종'의 매커니즘을 설명한 철학자 미셸 푸코의 미시 정치론과 연관짓는다.

이처럼 책은 김수영, 김춘수, 황동규, 기형도, 최영미 등 우리에게 친숙한 현대 시인의 시를 현대철학의 주요 개념이나 철학자의 고민과 교차시켜 통찰하게 한다. 시는 짧지만 그 속에 철학적인 권 못지않은 무한한 고뇌와 사유의 세계를 담고 있다.

하지만 이번 책은 엄연히 시 비평서가 아니라 철학 안내서다. '시'라는 감성적 코드를 끌고 들어와 다중, 에로티즘, 타자론, 부정변증법, 해체론 등 현대 철학의 주요개념들을 설명하고자 했다. 네그리와 박노해, 바타유와 박정태를 통해 '다중'을, 바타유와 박정태를 통해 '에로티즘'을 호네트와 박정태를 통해 '인정투쟁'을 이해하도록 하는 식이다.

각 장 뒤에 '더 읽어볼 책들'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시집과 철학책을 소개하고 있는 것은 이 책의 매력이다. 다만, 시와 철학을 연결하는 시도는 좋으나 낯선 용어와 어려운 철학적 개념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이 읽기에는 여전히 다소 버거운 감이 있다. (동녘·1만6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강은교의 시 '물길의 소리'는 알튀세르가 언급한 철학적 개념인 '우발성'(contingency)과 맞닿아 있다.

엘비스 프레슬리 등 음반 소개

배철수 음악캠프 20년

배철수·배순탁 지음



팝 음악 전문 프로로 독자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MBC FM '배철수의 음악캠프'가 방송 20주년을 맞아 특별한 책을 펴냈다.

'레전드-배철수의 음악캠프 20년 그리고 100장의 음반'은 20년 동안 디스크 자키로 청취자에게 다양한 팝음악을 소개해온 배철수가 직접 선정한 명반들을 소개한 책이다. "음악캠프" 작가로 참여하고 있는 배순탁이 함께 쓴 이 책은 1950년대를 풍미했던 엘비스 프레슬리부터 발랄된, 날렵, 킥, 빌리 조엘, 메탈리카, 오아시스를 거쳐 최근작인 프란츠 페르디난드의 음반까지 100장의 앨범을 펼쳐놓았다.

두 장의 음반이 선정되는 영예를 얻은 이들은 단 두팀이다. 비틀즈와 핑크 플로이드. 또 시카고, 포플레이, 블랙아이프스 등 유명 팝가수와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 등 음악캠프에 초대된 이들과의 인터뷰도 실려 있다.

각 음반에 대한 세세한 설명은 배순탁이 맡았으며 배철수는 촌철살인의 코멘트를 덧붙여 읽는 재미를 준다. 선정된 음반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 하나 읽다 보면 맥을 짚은 정확한 소개와 맛깔스런 해석 덕에 깊이가 날아온 음반을 다시 꺼내들게 된다. 없는 음반은 인터넷 사이트를 뒤지게 되고. (예담·2만3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첫 사랑에 빠진 멍어리 소녀

분홍주의보

에마 마젠다 지음



멍어리 소녀가 처음 사랑에 빠지며 겪게 되는 심경의 변화와 성장통을 그린 호주 출신 작가 에마 마젠다의 그림 에세이가 '분홍주의보'라는 이름으로 번역돼 나왔다.

한국 현대시를 이끌어갈 주목받는 젊은 작가 김경주(34) 시인이 아름다운 사랑의 언어로 번역하여 원문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다. "사랑이 밀려오려고 할 때 천천히 스미는 분홍을 뒤리고 부르는데 어떨까? 그런 이 세상의 기상해보려는 예측하기 힘든거야. 몸에 분홍이 아주 가물거물 물드는 거지. 그걸 나는 분홍주의보라고 불러... 분홍이 자신에게 아주 가까이 있다고 느끼는... 그런 분홍"

봄~겨울 사계절로 나눠 사랑의 마음이 변화하는 모습을 따라간다. 에마 마젠다의 독특한 그림에 김경주의 독특한 시어가 어우러져 따뜻한 감성이 녹아있다.

김씨는 "몸으로 자신에게만 들려주고 싶은 고백이 밀려오는 어떤 시기가 있었나. 그 무렵 나는 분홍의 고백이 밀려오는 나의 가정에게 분홍주의보라는 제목의 시를 한 편 쓴 적이 있다"며 "분홍주의보라는 제목을 이 책에 바친 것은 그러한 나의 오마주가 한몫했다"고 전했다. (써네스티·1만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심리학 관점 종족의 역사 설명

인간, 우리는 누구인가?

헤닝 옐겐 지음



과학 저널리스트로 활동해온 헤닝 옐겐이 쓴 '인간, 우리는 누구인가?'-진화적 관점에서 본 인간의 여정'이 번역돼 나왔다. 저자는 주로 진화 심리학 관점에서 인류사를 연구해온 학자로서 이 책에서도 긴장감 넘치는 문체로 종족의 역사를 설명했다. 책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에서는 인류 조상이 700만 년 전 유인원과 어떻게 갈라졌는지 서술한다. 원인(遠人)과 원인(原人)들이 어디서 탄생했으며, 어떻게 살았고, 왜 때때로 싸웠는지 설명한다.

2부에서는 수 백만년 전 침팬지와 공통 조상에서 분리되어 어떻게 현인류의 모습으로 정착했는지 살펴본다. 또 남녀의 견해차나 인간의 공격성 등 인간 심리를 진화심리학적으로 풀어냈다.

3부에서는 호모 사피엔스의 미래를 조망한다. 기계 문명이 발달한 오늘날을 살펴보고 과학이 얼마나 더 발전할지, 기계가 인간의 지배에서 벗어날 날이 올지, 인류는 유전자 기술을 이용하여 스스로 개선하고 결국 호모 슈퍼사피엔스가 될 것인가 같은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생물학적 견지에서만 아니라 사회학적, 신화적, 문화학적 지평으로도 시선을 열어두고 균형각각을 유지하고 있다는 점이다. (울문문화사·1만8천원)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KPM (주)국민법률경매. Includes contact info (062-364-8700), a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features, and a section for '공인중개사: 강영희'.